

셀라 SELAH

성경공부

내 삶 속에서의 셀라

들어가는 말

이 성경 공부는 “셀라”라는 성서 단어를 중심으로 한 넉넉한 나눔에 관한 방대한 자료 중 일부분이다. “셀라”는 성경에 총 74회 사용된 단어로, 대부분 시편에 그리고 나머지 몇 번은 하박국에 나온다. 시편에서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사람이나 장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일종의 구두법으로 독자들을 위한 지시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혹은 시편이 성경에 수록된 일종의 찬송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노래하는 사람을 위한 지시라고도 볼 수 있다. “셀라”를 포함하고 있는 서른아홉 개의 시편 중 서른한 개가 “찬양 인도자에게”라는 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표현이 어떤 음악적인 지침을 암시한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¹ 이 표현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잠시 멈추라는 지시로 보는 것이다 — 낭독된 것이든 불린 것이든 방금 들은 것을 묵상하고 새기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이 자료들 내에서 우리는 셀라에 대한 이해를 단지 노래나 낭독을 위한 지침을 넘어서는 인생살이를 위한 지침으로 확대하여 이해하였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분주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멈춰야만 한다. 또한, 줄곧 다른 이들에게는 묻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묻지 않는 질문, “내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한다.

본 자료 꾸러미는 “셀라”라는 표현을 포함한 시편들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본 성경 공부 자료에서는 “셀라”를 포함하지 않는 시편을 살펴볼 것이지만, 그 또한 “셀라의 삶”에 관해 말씀한다. 본 성경 공부를 마칠 즈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셀라의 순간을 꼭 자신에게 선물하겠다고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¹ Jason Soroski, “What Does Selah Mean in the Bible and Why Is It Important?” Crosswalk.com, <https://www.crosswalk.com/faith/bible-study/what-does-selah-mean.html>.

배경

시편 23: 하늘의 목자

대부분의 사람이 시편 23편이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본 시편은 장례식에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J. 클린턴 맥칸(J. Clinton McCann)은 그의 시편 주석(New Interpreter's Bible)에서, “시편 23편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상황에서 읽고 듣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시편으로 읽고 듣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적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관점에서 먹고 마시고 안전을 추구하는 등의 일상적 행위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셀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볼 때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무자비한 마감일과 혹독한 일정의 압박에 그때그때 반응하며 살지 않고, 의도적이고 반성적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 시편 23편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셀라의 삶은 우리의 속도를 바꾸고 더 적게 계획하도록 또 더 많이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할 수 있다.

PART I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기

다윗의 시

¹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²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³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편 23:1-3)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는 오해되기 십상이다. 우리가 목회자들과 여타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들을 목자로 부르면서 이 표현을 순화시켰기 때문이다. 성서 시대에 직업으로 양을 치는 일은 종종 사회 계층의 밑바닥에 있었다. 물론 학자들이 성서 시대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피지배자들을 돌보는 일을 종종 “목자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하긴 하지만, 아마 당시의 정치적 전문용어에 불과했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다윗이든 아니든) 하나님만이 목자처럼 진정으로 양들을 돌보는 유일한 통치자임을 깨닫는다.

성찰을 위한 질문:

다음의 일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1. 해야 할 일 목록에 어떤 일을 더 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하루를 보내기
2. 수업, 예배, 혹은 여타의 일을 준비하는 일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기
3. 아무런 일도 계획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기

성찰을 위한 질문:

1. 당신의 삶 속에 “푸른 초장”과 “쉼만한 물가”는 어디인가요?
2. 영혼이 소성케 되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나요?
3. 바른길에 서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한 적이 있나요?

² J. Clinton McCann; Commentary (on Psalm 23),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 Vol. IV, Psalms (Abingdon Press, 2015), 767.

PART II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생각하기

다윗의 시

⁴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 시편 23편이 장례식의 표준 본문이 된 이유가 분명해진다. 나는 이 구절을 장례식에서 읽을 때마다 골짜기에는 입구와 출구가 있다는 점을 힘주어 이야기한다. 골짜기란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다. 이 구절의 주요 초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모두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지 않는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야말로 이 구절의 핵심이다. 이러한 위안과 현존에 기대어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낸 이들의 장례식은 기쁨이 가득한 축제가 될 수 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때때로 이 도구들은 맹수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위협을 피해 양들을 안내하는 데 사용된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혹시 유년 시절이나 중고등 학생 시절에 시편 23편을 외웠었나요? 자신에게 낭송한 적이 있나요?
2.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당신의 삶의 골짜기가 있나요?
3. 하나님의 지팡이가 당신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살짝 찌르면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나요?

PART III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기

다윗의 시

⁵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5)

당신이 가족들과 함께 산해진미와 인생의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상상해 보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것이야말로 시편 기자가 우리 앞에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다. 대적들 또한 이 장면에 존재하지만,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앞에 그들은 더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 가장 영예로운 손님을 위해 준비되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이 장면에서 시편 기자에게 허락되어 있고 우리도 거기에 있다. 끝으로 넘치는 잔은 우리의 잔에 담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거의 비어있는 잔을 든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압도된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그 은혜에 응답했나요?
2. 잔이 넘칠 때, 당신은 더 나누고자 하냐 아니면 더 큰 컵을 얻으려 하냐?
3. 당신보다 훨씬 덜 가졌지만, 더 행복한 어떤 이들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나요?

PART IV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다윗의 시

⁶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6)

이 마지막 구절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follow)”라고 번역했지만, 몇몇 번역은 이 동사의 의미는 “추구 혹은 뒤쫓아 옴(pursue)”과 같은 더 적극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제안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쫓아 오고(pursue) 추격해 올 것(chase down)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좋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등 돌리거나 세상에 정신이 뻗긴 채 방황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할 이유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동을 걸고 우리를 쫓아올” 이유로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결론

본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시편 23편 또한 (다른 여타의 성경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특히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지만 밝혀야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셀라”라는 지침은 여러 시편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것은 잠시 멈추고, 쉬고, 성찰하라는 지시이며, 이는 말씀과 독서, 대화, 또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더 의미 있고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잠시 멈추고, 쉬고, 성찰하는 것은 성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듣게끔 할 것이고,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듣도록 도와줄 것이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행운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2.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쫓아오고 계신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3.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라는 구절은 무슨 뜻으로 다가오나요?